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3.06.27(화)	담당부서		한국어교육
연락처	323-936-3025/ seung822@kccla.org	담당자		노승환

**LA한국문화원,
<콘코디아 언어마을>에서 찾아가는 K-컬처 행사 개최**

- ▶ 행사명 : 찾아가는 K-컬처(한지공예/민화, 전통다례/다식 체험, K-pop 아카데미)
- ▶ 행사일정 : 2023.07.08(토) ~ 07.09(일)
- ▶ 장소 : 미네소타주 콘코디아 언어마을(Concordia Language Village)
- ▶ 주최 : LA한국문화원, CLV(Concordia Language Village) 한국어마을
- ▶ 행사문의 : LA한국문화원 한국어교육 담당 노승환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7.8과 9일 양일간 미네소타주 콘코디아 언어마을[Concordia Language Village]중 한국어 마을인 '숲속의 호수'를 찾아 한국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K-컬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콘코디아 언어 마을(Concordia Language Villages)*은 1961년 미네소타주 베미지 지역에 설립된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현재 14개의 몰입형 외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한국어 마을인 '숲속의 호수'**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미 전역에서 100여 명이 넘는 현지인들이 참가하는 한국어 캠프에서는 태권도, 미술, 음악, 요리, 연극, 노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다. 현재 스탠포드대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다프나 주르(Dafna Zur) 교수가 총장을 맡으며 한국어 마을 캠프를 총괄하고 있다.

* 콘코디아 언어마을(Concordia Language Villages) :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깊은 언어 캠프로, 현재는 14개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비영리 단체이다. 매년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콘코디아 언어 마을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몰입형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 콘코디아 한국어 마을 ‘숲 속의 호수’에는 모든 간판과 안내문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빌리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라 부르지 않고 마을 사람이란 뜻으로 '빌리지, villager'라고 부름)들은 캠프 기간동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 한국어에 노출되고, 그 사이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1999년 이래 지금까지 3000여 명이 거쳐갔다. 캠프 운영 초반에는 빈 자리도 많았지만, 한류 열풍으로 지금은 “숲 속의 호수 등록이 BTS 콘서트 티켓 사기만큼이나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고, 참가자들은 대부분 미 현지인들이다.

7월 8일에는 ‘전통미술(한지공예/민화)’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숲속의 호수’ 한국어 캠프에 참가하는 8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한지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직접 한지를 이용해 청사초롱과 한지 거울만들기를 체험해 보고, 에코백을 활용해 민화를 그려보기도 할 계획이다.

또한 저녁에는 한국어 마을 참가자 뿐만 아니라 인근 프랑스 마을 참가자들을 초청해 미네소타의 대표적인 K-Pop Cover Dance 그룹인 MKDC의 특별 공연을 즐기고 K-pop 워크샵도 함께 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다도명인인 명원문화재단 이영미 원장을 초청해 전통다례와 다식강의를 들어보고 직접 다식을 만들어 보는 행사를 마련한다.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다례와 다식을 통해 한국의 예절과 식문화를 배워보고 이를 통해 참가자간에 소통과 교류를 도모하는 기회를 만든다.

정상원 LA한국문화원장은 “올해부터 새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K-컬처] 사업은 미 현지인들이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과 프로그램으로 미 현지인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관련행사 참고 사진자료 별첨]